

농식품 창업 각광 ... 기술·자금 이용 쉬워진다

벤처·창업지원 특화센터 전남 이어 강원·경북 설치

농식품부장관, 김제시 청년들과 '새참토크'

창농·일자리 창출 애로사항 등 농정시책 반영

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화두로 6차 산업 활성화가 대두되고 농식품 관련 창업이 각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지원책 마련을 위한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6일 김제 하랑영농조합법인에서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와 '청년들과 함께하는 새참토크'를 진행하고 농식품 원스톱 창업지원을 위해 '농식품 벤처·창업지원 특화센터(이하 특화센터)'를 개소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새참토크에는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과 박용호 청년위원장 등을 포함해 청년위 2030정책 참여단 등 18명이 참석해 농산업 창업 등을 주제로 자유롭게 소통했다. 또 농업계 대학 취창업 동아리 지도교수와 학생 100여명도 온라인을 통해 간담회에 참여했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과 박용호 청년위원장은 창농과 일자리 창출 관련 애로사항, 건의사항에 대해 대화하고 청년위 2030정책참여단이 제기한 농업계 대학의 현장중심 교육과정 강화방안, 창농 활성화와 연착륙 방안, 스마트팜 등을 논의했다.

특히 20~30대 우수 창업자인 하랑영농조합법인 허정수 대표, 농업회사법인 만나 CEA 박이론 대표, 부용농산영농조합법인 유화석 대표 등 선배 창업자들로 부터 생생한 경험담을 듣고 성공 사례를 공유

했다. 이동필 장관은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농산업 분야 창업에 뛰어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농업정책 추진 시 적극 반영하고 앞으로도 청년과 소통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식품 벤처·창업 관련 지원 서비스도

더욱 가까워지고 쉬워질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농식품 원스톱 창업지원을 위해 지난해 6월 전남에 '농식품 벤처·창업지원 특화센터'를 설치한데 이어 이달 중 강원과 경북 특화센터 2개소를 추가로 설치한다고 밝혔다.

특화센터는 창업보육 및 판로개척 상담 등 농식품분야에 특화된 창업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기술, 자금, 판로 등 창업기업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게 된다. 현재 농업기술 실용화 재단에서 센터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6일 김제시 하랑영농조합법인에서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2030 정책참여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

조계현 소장의 특 특 창업 이야기



불경기 대응 외식업계 3대 전략

외식업계에는 작은 속설이 하나 있다. 매출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의미로 하루 중 전체 테이블 회전수를 기준으로 1회전을 하면 적자요 2회전을 하면 생활비가 나오는 수준이고 3회전을 하면 돈을 좀 번다는 얘기가 그것이다. 이런 속설을 기준으로 최근 외식업계의 상황을 대입해보면 자영업자들은 2회전을 시키기가 너무 벅차다는 말들이 많이 나온다. 정말 1회전만 해도 감사할 따름이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2016년 들어서 뚜렷한 매출감소 현상은 뚜렷하게 느껴진다.

외식업계의 불황을 일반인들도 가장 손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평소 애용 현수막도 내걸리지 않던 외식업소들이 갑자기 가게 안팎으로 가격파괴나 신메뉴 출시, 이벤트 등 모객용 홍보현수막이 걸리는 매장이 많아지는 현상 하나만 살펴봐도 금방 알 수 있다.

이렇듯 경기불황이 깊어지면 외식업계가 감소하게 되고 줄어든 고객을 그나마 자신의 매장으로 최대한 유입시켜야 생존권을 보장받게 되는 외식업계의 생존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진다. 이 치열한 생존경쟁은 외식업계의 특성과 한계상 크게 3가지 대응전략으로 임하게 된다.

첫 번째 대응전략은 가격파괴다. 경기가 불황일 때 외식사업자의 내공이 있거나 내공이 없는 외식업소 모두가 가장 많이 쓰는 기본 전략이기도 한 이 가격파괴 전략은 대부분의 전략적 접근이 그렇듯이 동전의 양면 같은 장단점이 존재한다. 고객 유입 효과는 증가하는 반면에 수익감소라는 치명상을 입게 된다. 이 전략의 가장 큰 리스크는 전체 메뉴에 가격파괴 전략을 도입했는데 정작 고객 증가가 미미하면 수익성 감소 폭탄만 끌어안게 되어 운영에 치명상을 입을 위험성이 크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 전략은 반드시 부분적인 메뉴에만 국한되어 시행되어야 함을 잊어서 안된다.

두 번째 대응전략은 이색메뉴의 출시다. 이 전략은 주로 평소 적극적인 운영전략을 펼치는 상당한 수준의 내공을 가진 외식사업자들이 자신만의 노하우나 벤치마킹을 통해 확보한 노하우를 활용하여 펼치는 전략이며 이색메뉴의 특성상 기존에 흔치 않은 메뉴인지라 고객들의 호기심 유발효과는 크지만 메뉴가 대중성을 상실하면 매출에 효과는 고사하고 주방 조리동선만 어지럽혀 주방 근무자들의 스트레스 지수를 상한가로 올려주는 리스크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 전략은 반드시 몇 개의 후보 메뉴를 개발하여 고객들의 사전 호응도 조사를 거친 후 런칭하는 예비단계가 반드시 필요로 함을 잊어서 안된다.

세 번째 대응전략은 몰량공세다. 속칭 메뉴의 푸짐함으로 승부하는 전략이다. 당연히 그릇 사이즈도 커지고 양도 많아지며 가격은 착해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걸리는 전략이다. 이 전략에는 이색메뉴의 느낌도 살짝 가미하여 메뉴 각각의 특성을 살린 크로스 오버형 세트메뉴 구성도 도전해볼만 하다. 이 전략은 2차 메뉴 주문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식당형 외식업소에는 괜찮으나 2차 메뉴선택이 매출에 영향을 크게 주는 주점형 외식업소에는 권하고 싶지 않은 전략이다.

경기불황은 불특정한 주기로 반복되어 왔다. 이를 때 일수록 본인의 업소를 찾는 주요 고객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전략들을 잘 연구하여 선택해서 차분하게 풀어나가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소상공인창업전략연구소장>

"톡톡튀는 청년창업 우수 아이템 찾습니다"

도로공·발명진흥회·광주테크노파크 공동 아이템 공모

선정엔 광주·전남 지역내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 특선

"톡톡튀는 발명 아이디어와 청년창업 우수 아이템을 찾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본부장 고재석)는 오는 31일까지 한국발명진흥회 광주지회(광주지식재산센터), 광주테크노파크와 공동으로 시민들의 우수한 아이디어가 창업과 특허등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발명 아이디어와 광주·전남 지역 고속도로 휴게소에 입점할 청년창업 아이템을 공모한다.

모집분야는 일반부와 청년부, 청년창업매장부로 나뉘어 진행되며 일반부는 시민 누구나 응모할 수 있고 청년부는 39

세 이하 청년이 참가할 수 있다. 청년창업매장부는 만20세 이상 35세 이하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을 대상으로 광주·전남 지역 내 고속도로 휴게소에 입점할 수 있는 특선이 부여된다.

휴게소 청년창업은 고속도로 휴게소 매장에서 창업이 가능한 일반창업(기존 메뉴와 차별화되는 간식류와 식스류)과 지식창업(공예, 그림, 패션소품 등)으로 나누어 공모한다.

지역 내 청년창업매장 입점예정 휴게소는 백양사(순천방향), 섬진강(부산방

향) 등 7곳이며, 한국도로공사는 창업매장에 입점하는 창업자들에게는 인테리어 비용 면제와 창업전문가 컨설팅, 입점 홍보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는 6월 중 심사를 통해 창업매장 입점자를 최종 선별하고 창업준비가 완료된 매장부터 단계적으로 문을 열 계획이다.

공모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일반부와 청년부는 광주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www.ripic.org/gwangju)와 062-604-9246번, 휴게소 청년창업매장부는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www://cafe.daum.net/hi-khc062)와 전화 061-883-6045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기업가 정신 지닌 창업 인재 육성 대안학교 '파이' 2기 신입생 모집

기업가 정신을 지닌 창업 인재 육성을 목표로 개교한 대안대학 '파이'가 2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파이(PIE: Professional Institute of Entrepreneurship)는 지난 3월 개교한 3년제 대학으로 교육과정은 심리상담·건축디자인·지역커뮤니티·인문IT의 4가지 트랙으로 구성됐다.

대안학교나 일반 고교를 졸업했거나 기존 4년제 대학을 중퇴 또는 졸업한 사람을 대상으로 기존 전공과 상관없이 새로운 분야의 창업을 꿈꾸는 인재를 모집한다.

2기 신입생 모집 설명회는 오는 21일 오후 2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파이 캠퍼스에서 열린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www.pie-edu.kr)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 031-703-0104.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대지, 급매

- 전남 여수시 서교동 668-7, 8번지 서교동 로타리 우리은행 바로 옆
- 대지 260평 (120평 140평 분할 가능)
- 일반 상업지역 / 6차선 도로 접 / 현, 주차장
- 시세 / 감정가 - 23억원
- 용 12억 8천만원 있음 / 법인체 인수 가능
- 매매 - 협의
- 병원 / 사무 / 무인텔 / 상가 / 대형마트 등등 적합
- 1층 조립식 건축 후 상가 임대료 1,200만원 예상
- 주인직매 H. 010-8829-6876

대단위 APT 밀집지역 근린상가



- 광주 서구 금호동 243-6번지 서광병원 맞은편 4거리 코너
- 7층 건물 중 701호 (7층 전체) 130평 (실형 89평)
- 대형주차장, 4면유리, 전망최고
- 감정 / 시세 - 7억
- 매매 - 6억 2천만원
- 법인체 인수 가능
- 현재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3백만원 포함
- 주인직매 H. 010-3605-5000

숙 박 호텔급 대형 모텔

-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지리산 온천지구 내 송원리조트 앞
- 대지 573평 건물 719평 객실 58개
- 시세 / 감정가 - 15억
- 매매 - 10억 (조정가능)
- 경매로 7억 3000만원에 낙찰
- 용 6억 3000만원만 있음, 법인체 인수 가능
-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준비중 (공사비 4억 예상)
- 리모델링 후 연 4억 이상 순수익 가능
- 리모델링 후 20억 이상 매매 가능
- 소유자 H. 010-3605-5000

경매투자자

- ▶ 투자 하실 분! 공동 투자 가능 연 20% 수익 보장
- ▶ 비합 배우실 분! 특수물건만 취급 교육비 등 1200만원
- ▶ 사무실 같이 쓰실 분!

(주)오천경매 H. 010-3605-5000